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잖아...



그건 문제도 아니었네, 누나가 없었으면...



클리텐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존 레논, 밥 딜런...

물링 스톤즈, T렉스, 지미 헨드릭스.

좌장 장장

진진 장장

드득 드득

차장 창



켄지.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뒤구 뒤구



내가 엄마 하면 되잖아.



뭐?



아... 하하, 그 앤 워낙 개나 고양이를 주워 와서도 소중히 했거든. 책임감이 있었잖니.

...



강에 두 번 빠졌을 때... 또 한번은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난 세 번만 죽을 뻔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잘 시는
고교 선배가
있는데,
기타를 몇 대나
갖고 있거든.

언제나 진열장에
코를 박고
그것만 보고
있었잖아.

너, 역앞
악기점에서



징그러운
녀석이었지만.



뭐니,
시끄럽게!



이거,
여기 봐준다.

봐준다니,
뭐...?



말없이 문 열지
말랬잖아.



노크하면
장지문이
찢어지잖아.



이... 이...
이게 대체...!!

누... 누...
누나!!



무적의 사나이가
있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커튼은 왜 열어,
가게 문 닫았는데!



거기에는
기관총을
든...

어두운 유리에
내 모습이
비쳤다.



칸나는 누나의 아이야.



...



누나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키운다!



원흥인, 등의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니까...



뭐요?

그것이라고 하지 마.



워, 생각할 것도 없겠조.

현재 같은 매출 성적이 이 이상 계속되면 본사로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칸나는 칸나다. 물건 취급하지 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점장?

물건처럼 말하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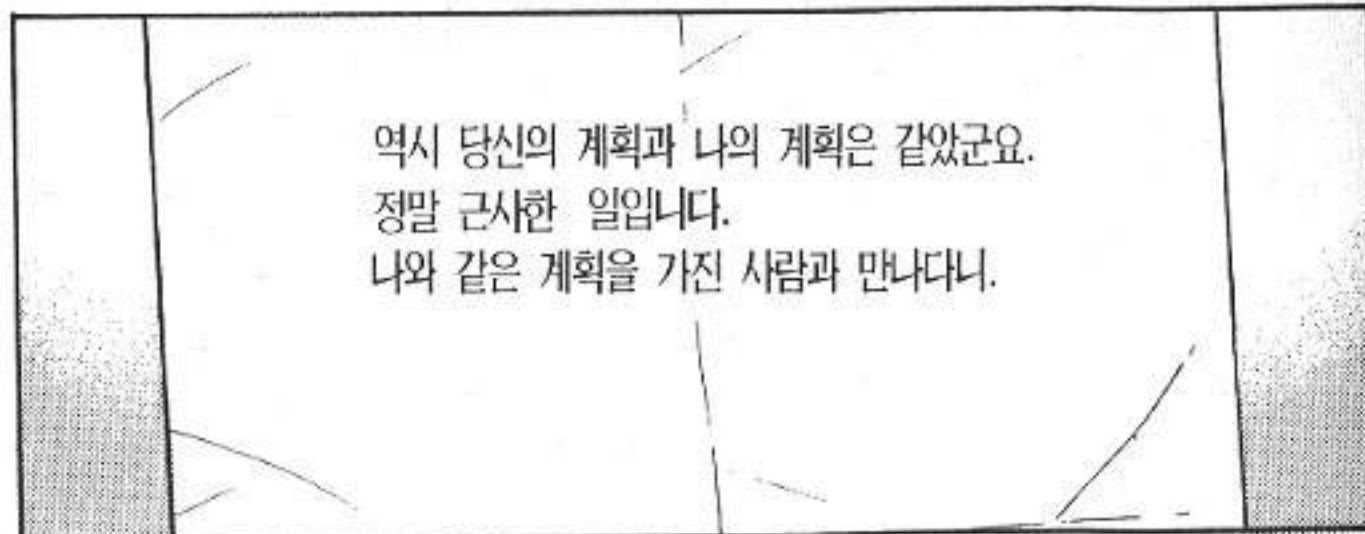


그래도 계약을 끊고 싶으면 끊어. 난 다시 술 가게를 하면 되니까.

피나도록 일해서 매출은 올려 주겠어.



이보세요, 점장...





자살 같은 걸
할 사람은
아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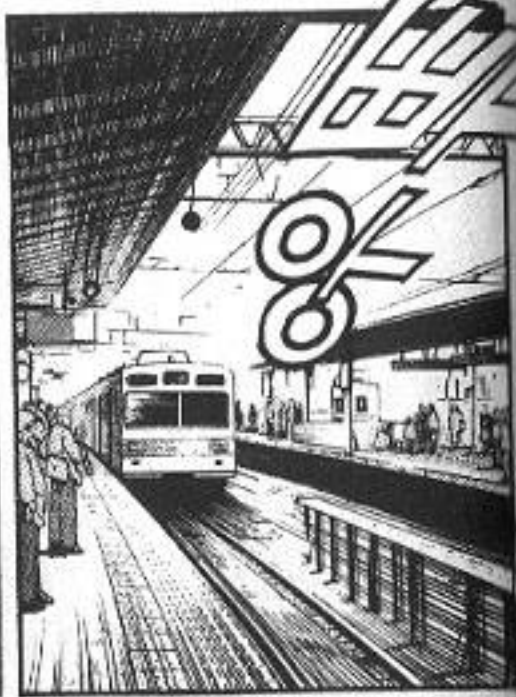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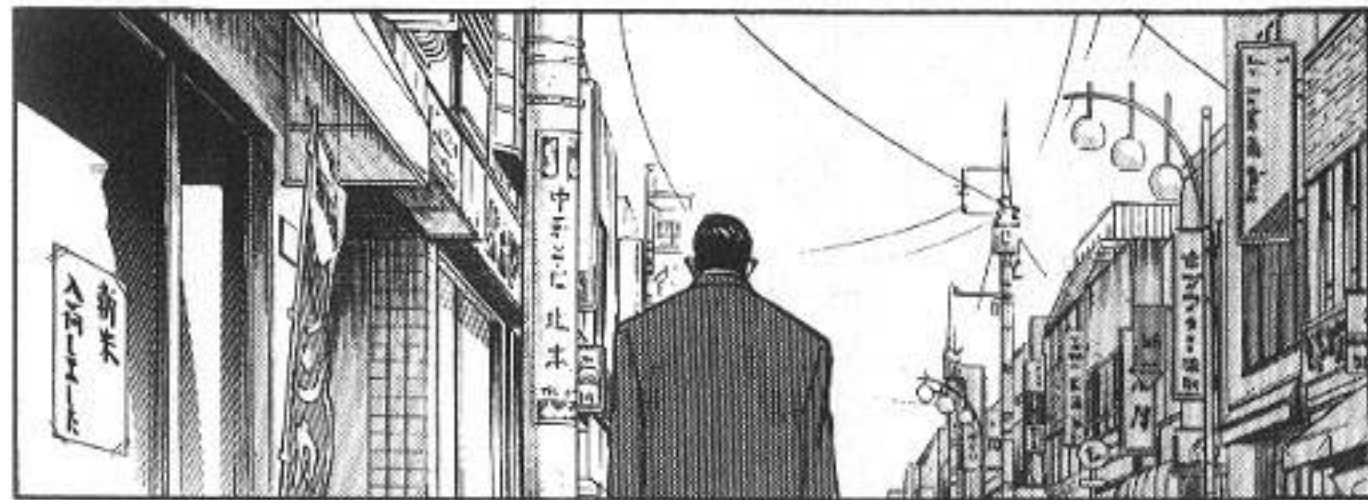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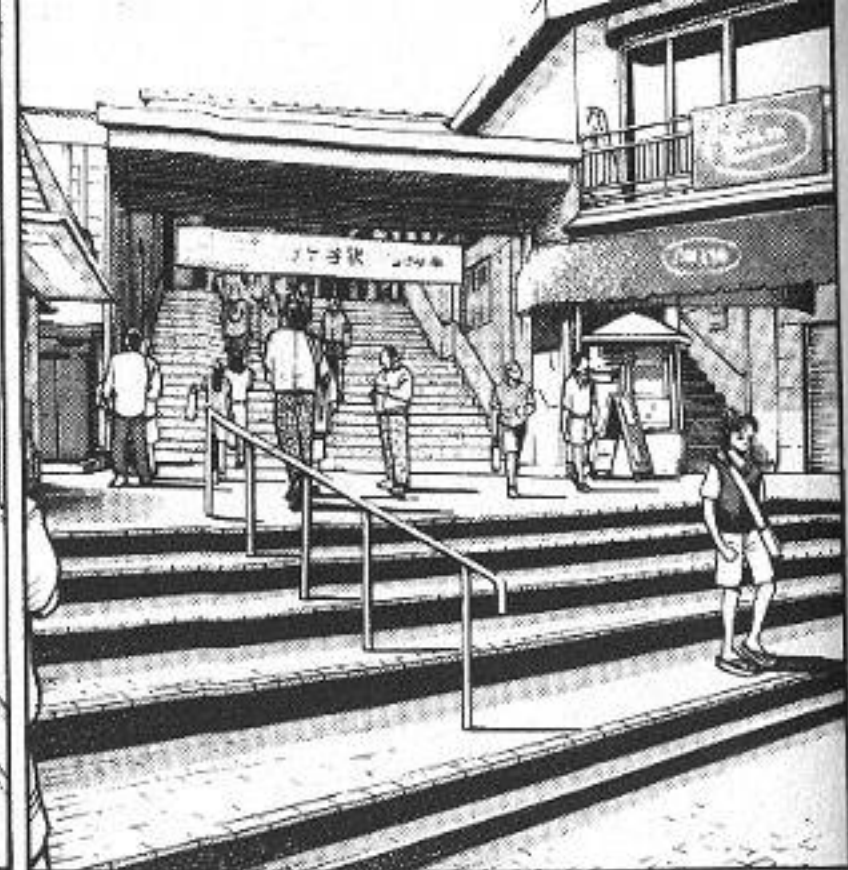
199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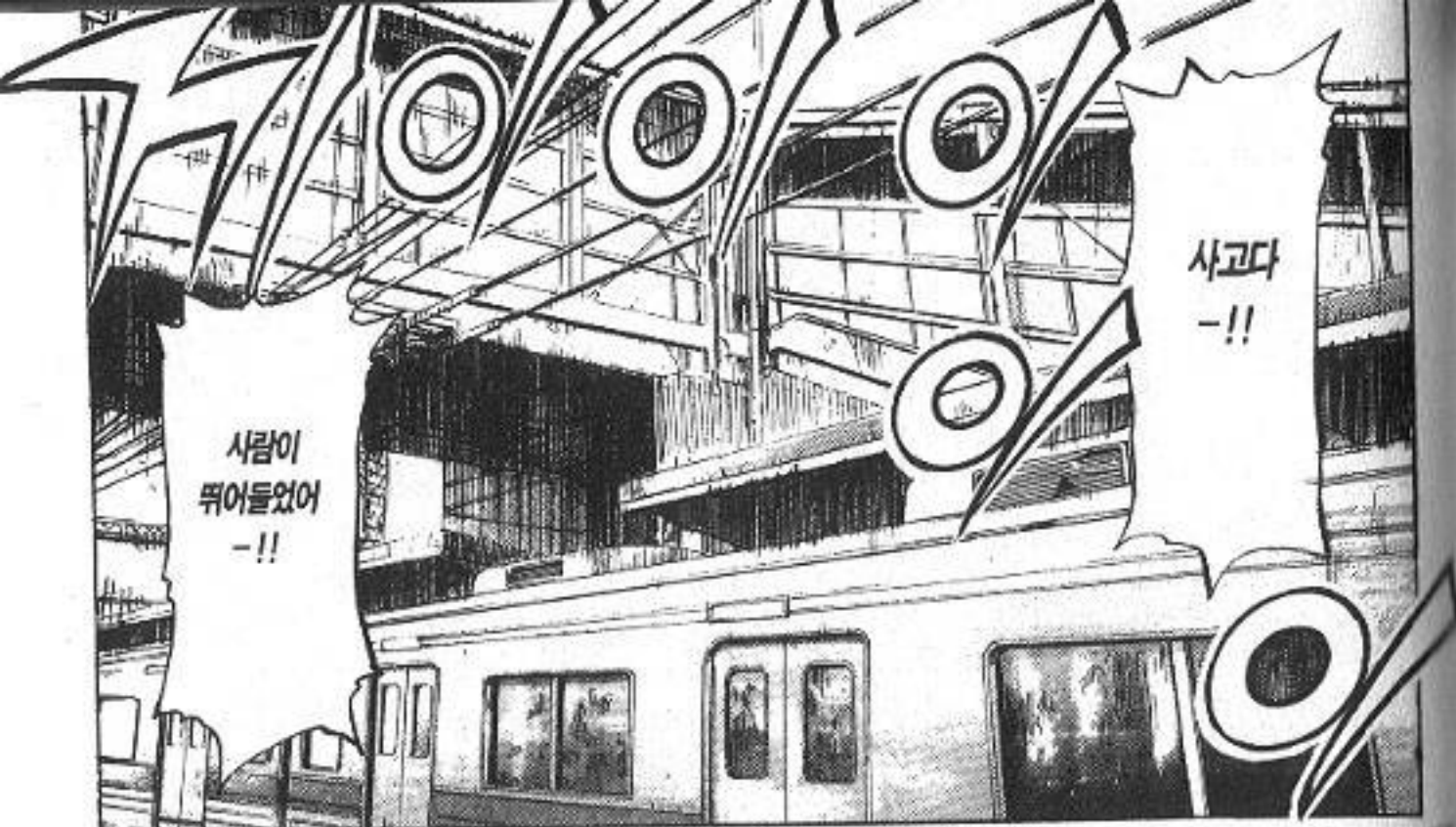




쭈욱...







사고다
-!!

사람이
뛰어들었어
-!!



누가 좀
와-!!

뛰어
들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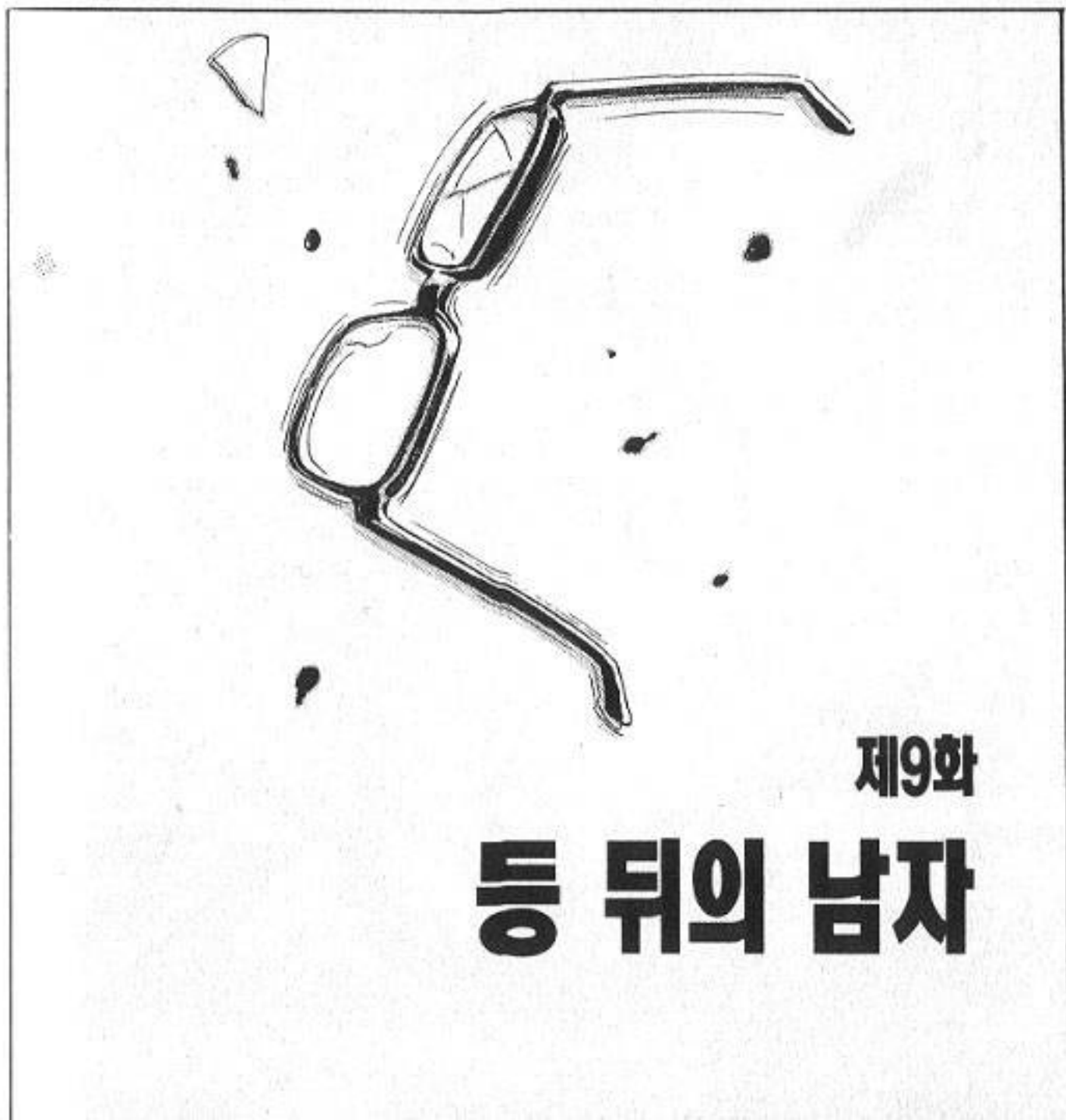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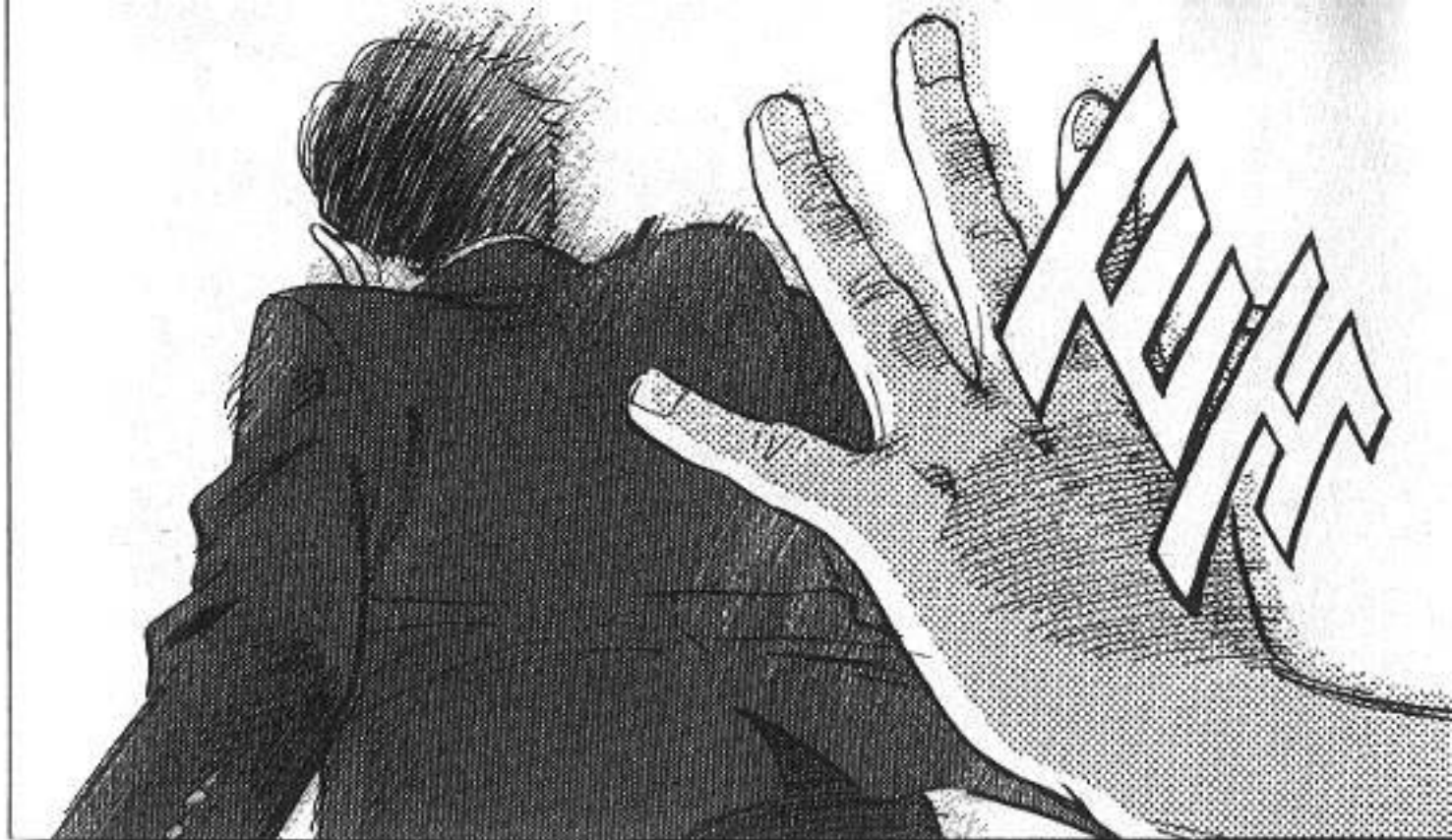
어...어이,
무슨
일이야?!



이런 출근시간에
뭐 하는 거야-!

전철이
안 간다고?
어쩌란 말야-!

정기권 파는 곳



제9화

등 뒤의 남자



자전거라면
역 앞에 나도
있어요.



같이 타고...



가진
않겠지?



그러니까
남쪽 출입구로
나가주세요...

오늘은 늦으면
안 탄단
말야!
어떻게 가야!



아...아무리 그래도,
언제 복구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시험인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택시가
잡힐까?

아-
하는 수
없지!



버스는 줄이
꼭 밀려서
못 탄단
말예요!



큰일났네...
나도
시험인데.



아-
최악이다
...



하는 수
없지,
자전거로
가자...



하지만...
20분
지각했어요.

일단은요



그때,
시험은 쳤어?

아...
그거예요.



시험치나
마나 그게
그거려구.

문제를
잘못 찍어서,
제대로 풀지도
못했어.



나도 간신히
시험은 쳤지만...

철각
철각



하하하하



정말?



나도요



안 하겠지?

같이
차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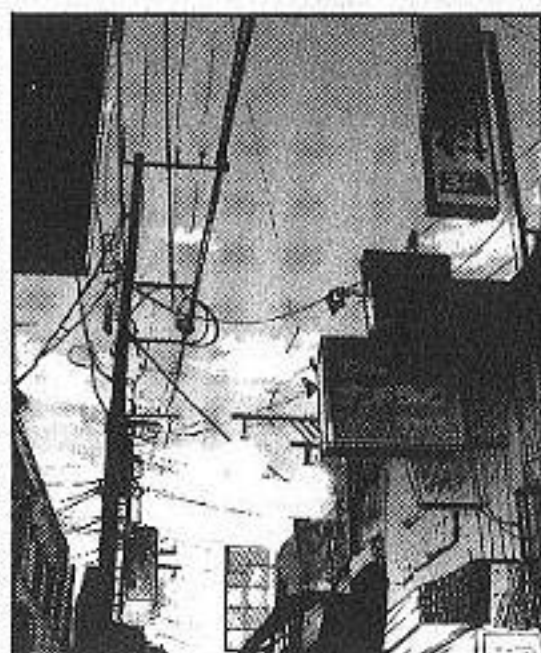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자.



아우~



네건
어느 거야?

아...



내 자전거도
여기 쓰러져
있거든...



정말 싫다!



아...
고맙습
니다.

철각
철각

끼깁
끼깁



"친구"라면
나보다 훨씬
잘 할 걸요.



그런 여자는
눈 깜박할
사이에
넘어오죠.

하물며 지금
상대 여성은
사랑하던 남자를
잃고 상심해
있어요.



"친구"도
잘 할 수
있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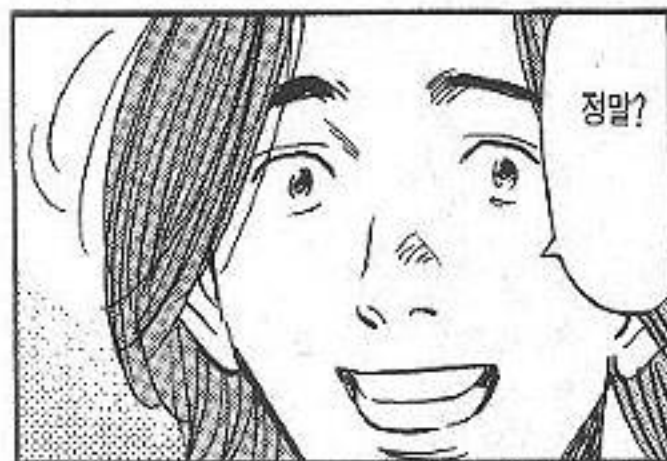


진짜 "친구"가
되는 게 훨씬
어려울 걸요.



아아...
하면 할수록
"친구"의 위대함이
실감나는군요.

자네는 우주와의 일체감을
슬슬 실감하고 있지 않나?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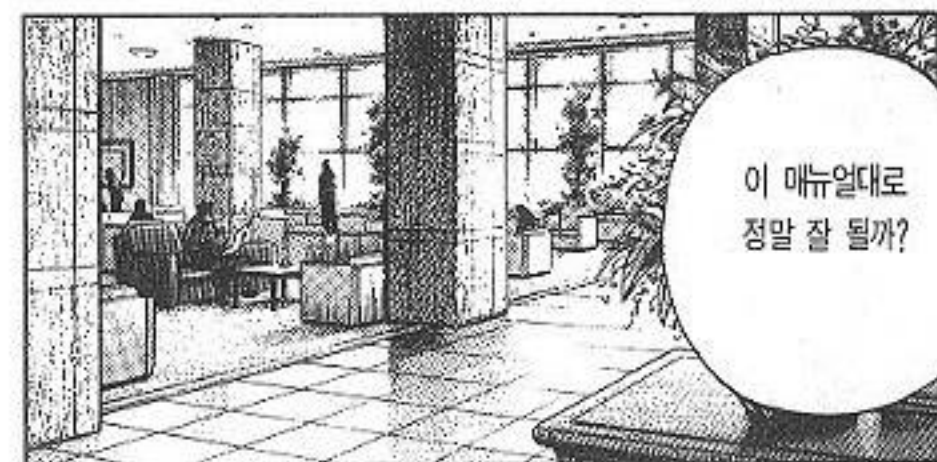


좋아요.



햄버거나
막을까?

잠깐만이에요.
늦으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이 메뉴얼대로
정말 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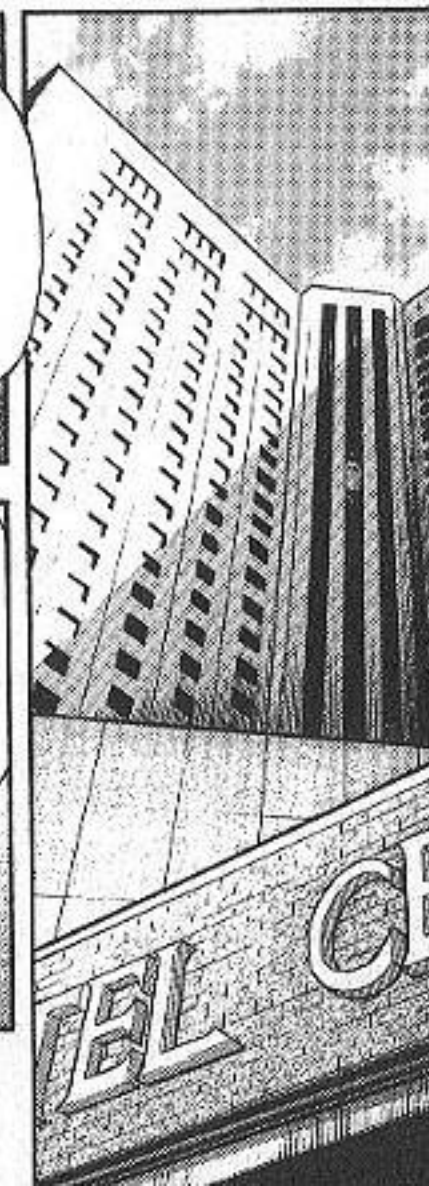


여자 하나
포시는 건
간단해요.



물론.

자네가
아니라도
잘 되겠어?





하지만
드라마의 악역은
결국 패하고
말지.



악역이 훨씬
멋있으니까.



현실이라구요.

이건
드라마가
아닌걸요.



미안해요...
이제
가야겠어.



아...



"친구"가
기뻐해 주면
그게 최고죠.



다행이다
...

"친구"도 자네를
높이 평가하고
있대네.



등을 슬쩍
떠밀었을
뿐인 걸요.



역 플랫폼에서,
남의 눈도
있었을텐데...



아니...



정말 잘 해
줬어.



촌스럽잖아요?
TV나 만화에 나오는
정의의 주인공
같은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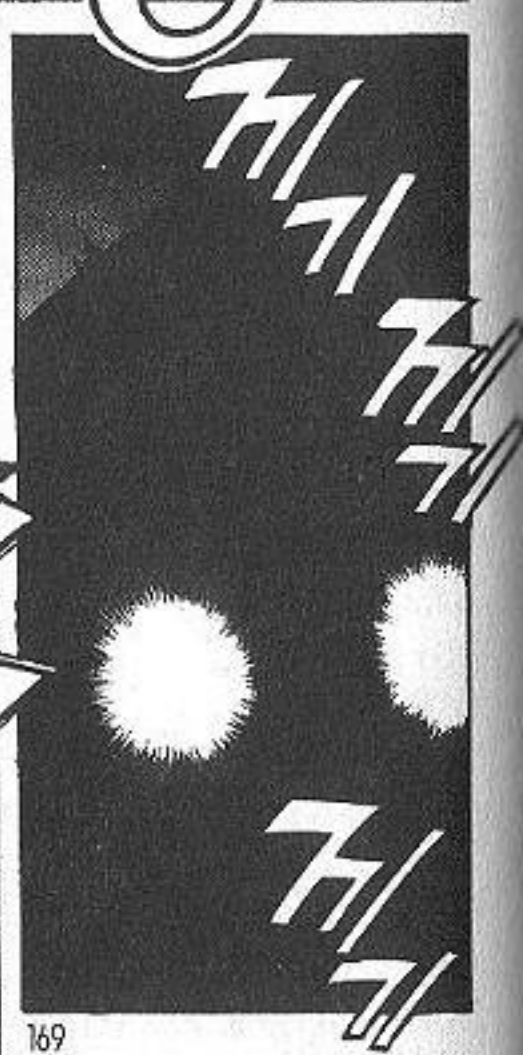
킬러가
되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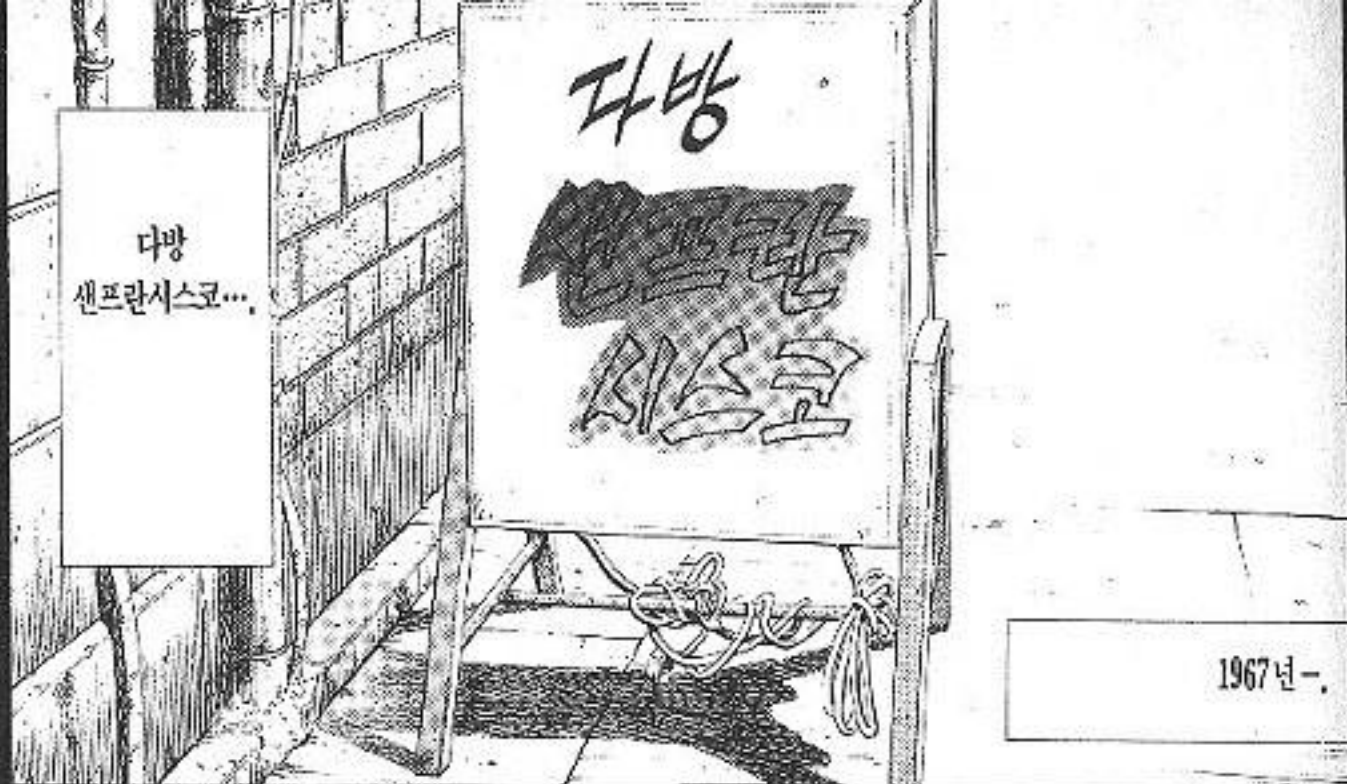


"친구"를
위해서라곤 하지만,
좀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릴 때부터
꿈이었으니
까요.





다방
샌프란시스코...

다방

샌프란시스코

1967년-



하지만
고지라가
여자라는 건
쇼크였어.



역앞 국제극장에서
(고지라의 아들)을
누나와 함께 보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다방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게다가
※아나기야 킨고로랑
똑같은 것도
쇼크였어.

새끼를
낳았으니까
여자 맞지?



그래!
역시 고지라는
남자여아지!

그래?

※ 아나기야 킨고로: 쇼크베어, 델린트, TV 프로 <저스처> 등에서
막간에 웃음을 주는 역할로 인기를 끌었다. 1972년 사망.



코슈 방면 및
메이지 대로 완전봉쇄!
엄중 경계에
들어간다-!!

시...신주쿠 방면,
수수께끼의
물체 이동중-!!

누... 누가 짐!
이쪽으로 인원을
보내 줘!!

2000년 12월



동거라는 말은 어린 마음에도 뭔가 나쁜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알았어, 이...일단 병원에서 진찰부터 받자, 응?



우리 돈도 없고...

놓겠다는 말은 안 했어... 때가 지났는데, 그게 없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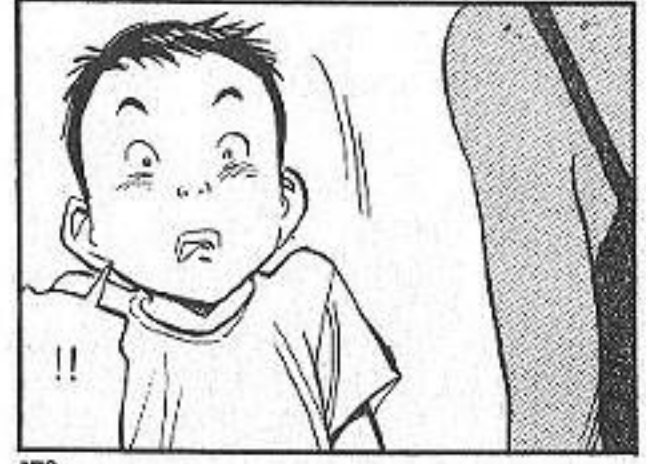
아줌마들이 '저 두 사람은 동거한대' 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살롱 런던이 있었다.



처음 와 본 다방은 어떤지 어른스런 분위기로 가득했다.



!!



준비중



상대라니?

아빠 고지라.



상대가 없다는 건 이상해.

그래.



상대...?



뭐?



한 마리뿐이면 새끼를 낳을 수 없잖아.



고지라는 원래 한 마리잖아.

아빠 고지라?



옆자리엔 우리집 근처 아파트에 이사온 동거 커플이 있었다.



낳는 건 무리야.



엄마!!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와
시망자
속출이라~~!

하이~이번엔
샌프란시스코야?



가자,
첸지.

아...
아뇨!

뭐니?
꼬마야.



좀더 어른이 되면
나도 동거를 하고
다방 샌프란시스코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
응



아
!!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편의점 계약이
끊어진단 말야!!

제10화

예언자



살롱 런던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생각했다.



전 미 준비상!

동부대학교 시립대학
의무직 50명 채용
시망자 50명 채용
의해 확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못쓰지.

뭐 해?
얼른 나와.



죽으려면
나가서 죽어.

어이,
괜찮아?



이거 귀찮은 게
굴러 들어왔구만.

이런,
이놈 칼에
찔렸나봐.



할 수 없지,
119에 전화할까?

어찌지?



아...
없어...



의료보험증은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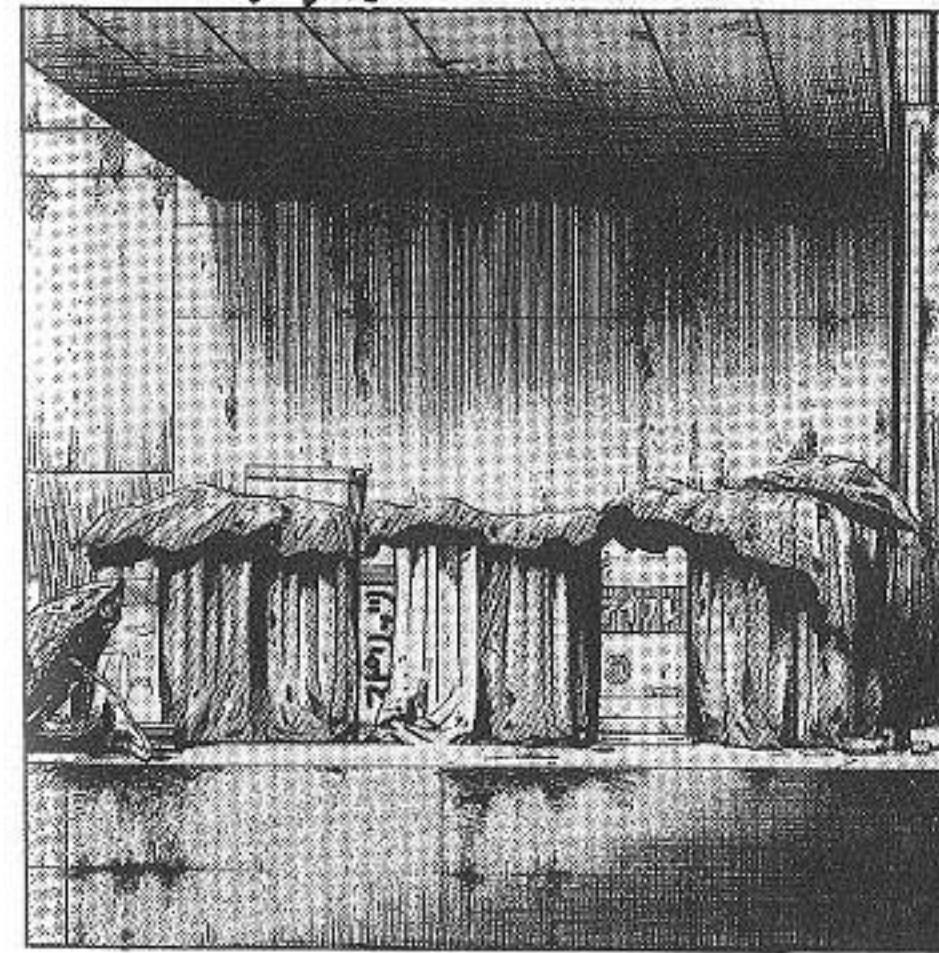
당신,
돈 있어?



하아!

하아!

하아!



헉!



내 집에
누가 있어.

왜 그래,
헤이?



어이,
얼른 나와.

어이.



역시 그 형씨를 부르러 온 건가...



아... 신령님.

그건 그 편의점 주인 형씨네.



그 형씨한테는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역시...?

이것도 꿈에서 본 걸니까?



그러니까 죽으려면 나가라니까...

안되다니...



아... 안돼!!



이...이 근방에 있을 거야...

기르던 개라도 도망갔나?



나...난 찾고 있어...



지갑이라도 떨어뜨렸어?

찾고 있다니...?



츄 씨, 자네 걸음 빠르지?



하지만 부른다고 올까...

아무튼 불러 와야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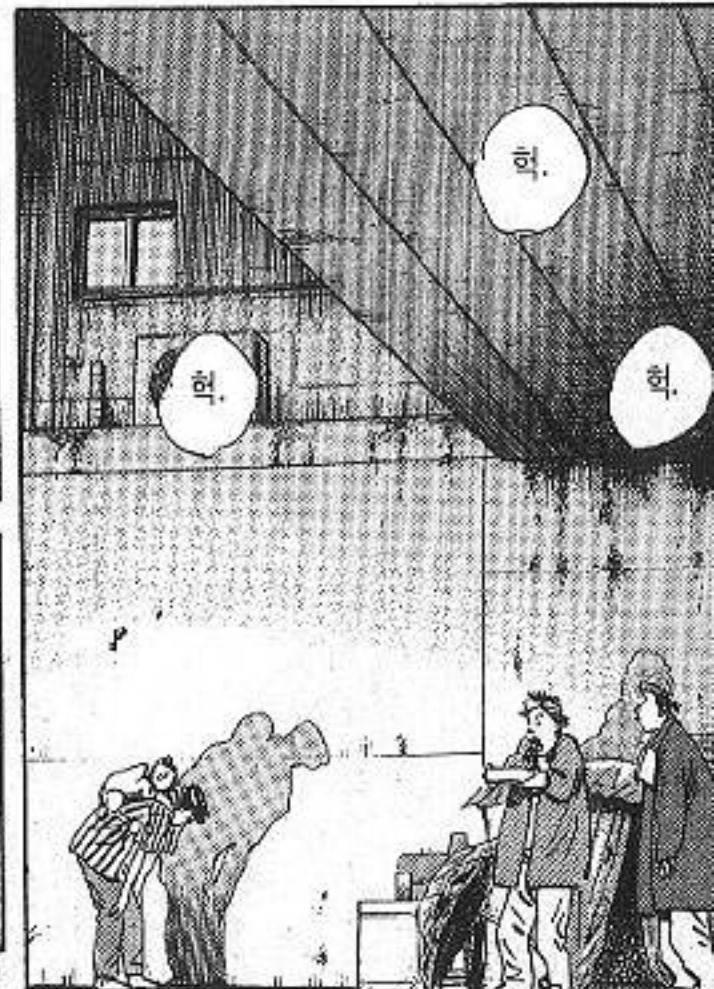
켄지?

위... 위대한 인물이...



켄지...







다음은 어디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난 세군이 퍼졌어...



모르겠어! 이 사람이 뭐라는 거지?



어...



오랫동안... 나는 믿고 있었어...

쿨럭, 쿨럭.



그곳이... 근사한 모임이라고... 믿고 있었어.



회!

시침때지 마!



너...너 같은 남자가... 정말 위대한 예언자나...?!



뭐어?!



됐어, 됐어.

자... 잠깐! 이, 이 사람 다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다쳤다니까!



아...알리다니, 뭘...?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 네게 알리기 위해...

나는... 목숨을 걸었어...



다음엔 뭘 하려는 건지 묻고 있잖아!

뭐어?!



다음 번에 그는 뭘 하려는 거지?!



그 "친구"란
놈이,
대체 누구야?



"친구"...



너는
전부 다
알고 있어...



너는 "친구"를
알고 있어...

너는
알 거야...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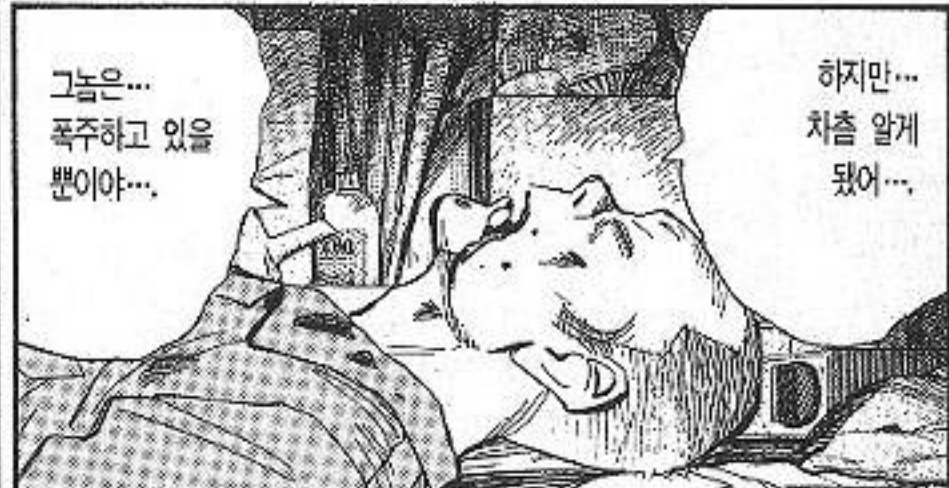
전부... 네가
생각한 거야.



모른다고
했잖아!



폭주...?



그놈은...
폭주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차츰 알게
됐어...



빨리...
"친구"의 폭주를
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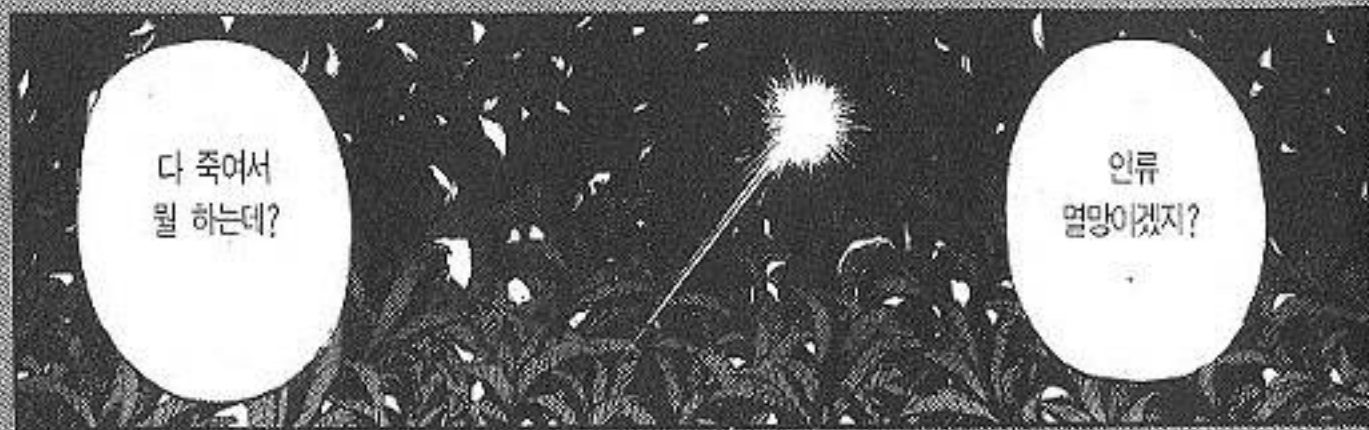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어...

'친구'는
진심으로...



...하지만
악의 조직은
될 하지?

1969년 -



다 죽어서
될 하는데?

인류
멸망이겠지?



역시~
그러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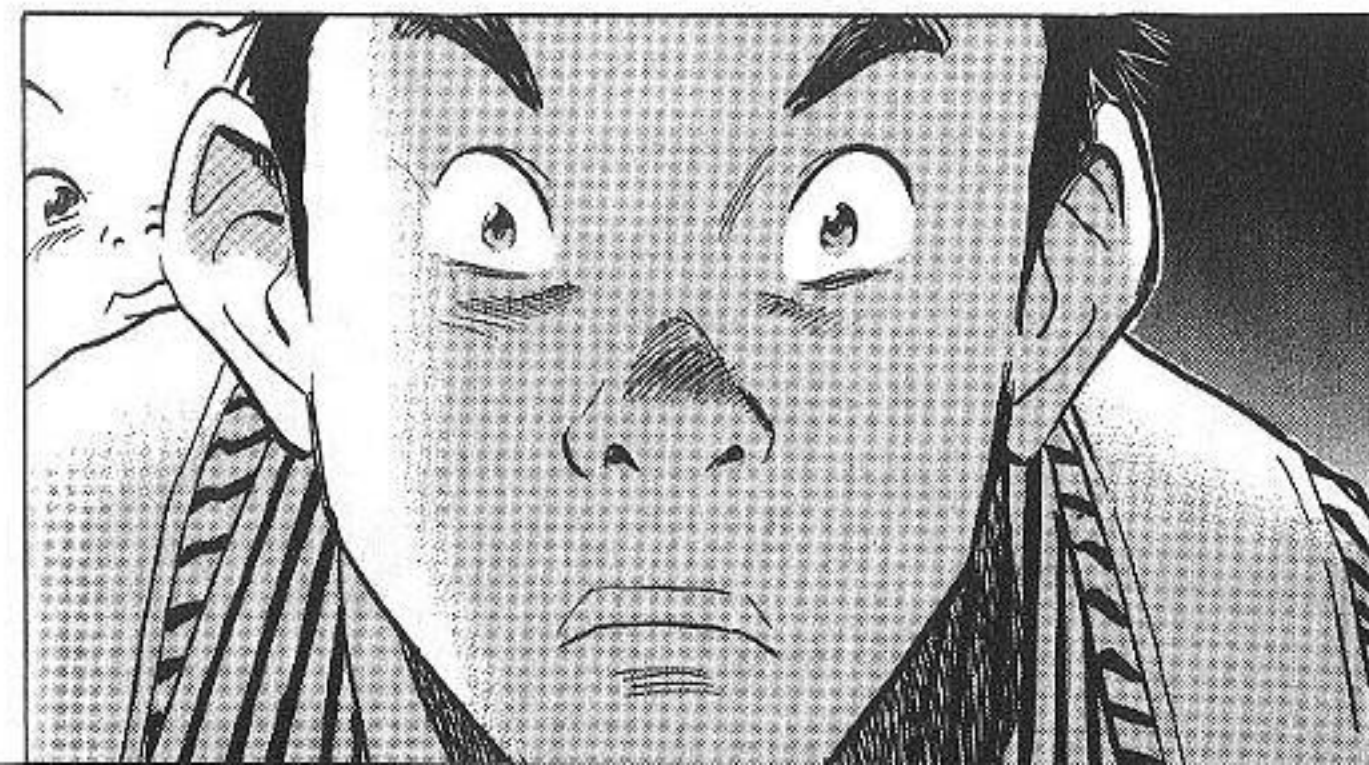
워니워니 허도
역시
세기정복이구나~.



그야 물론
세기 정복이지.



전부 다,
어렸을 때 네가
생각한 줄거리란 말이야.





나쁜 놈한테 수소폭탄을 팔, 떨어뜨리면 착한 놈도 다 같이 죽을텐데.

그런가 -!



맘대로 먹을 수 있고.

하지만 뭔가, 악의 조직이 더 좋게 보이는걸.



무슨 소리야! 악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구!



그럼 어떻게 공격하면 돼? 오쵸.

수소폭탄 같은 걸 떨어뜨리면 도시가 다 부서질 테니까.



수소폭탄은 쓸 수 없어.



무시무시한 세균이 굉장히 많다고.

맞아! 누나도 그랬어.



세균병기?



세균병기야.



물론 숙제도 없고.

맨날 여름방학 같겠다.



맘대로 먹고!

만화도 맘대로 보고!



재미없는 건 아무 것도 안 해도 되고...



좋다아~~~~~



좋지? 세계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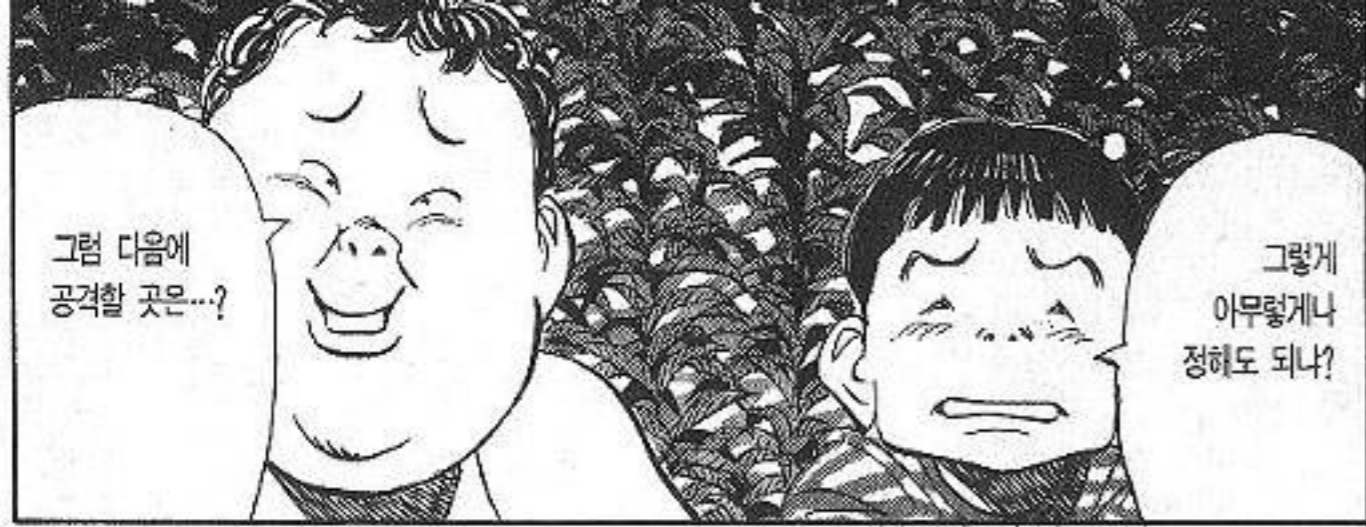


그 악의 조직으로부터 지구의 위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거란 말야!



내가 지금 만들려는 얘기는 그렇게 아냐!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럼 다음에 공격할 곳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나?



그 다음은 어디지...?

맨 처음엔 샌프란시스코 ...



다음에 세균이 퍼질 곳은 어디지...?

네가 어렸을 때 생각했잖아?



설사가 나면 지구의 위기를 구할 수 없어.

어째 쿠리쿠리하다.



다들 설사가 났을 때 공격한다 이거지?

티푸스균이나 콜레라균이나, 이질균 같은 거.



도쿄일까?

맨 처음엔 어디서 시작하지...?



악의 조직은 세균병기로 공격해 온다...라.

좋아!



이야기의 무대가 일본인데, 처음부터 도쿄를 공격하면 다 끝나게?

그건 마지막이야.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그 왜, 있잖아! 앞에 "지방 샌프란시스코".



세계의 어딘가... 아닐까?

아...

1997년 -

런던...

제11화
눈을 떠라!!

러...

숙롱

권 권

가방

시스코

경 경 경 경 경 경



조심해...

아...



레... 레이저 총...?



레이저 총...!



그것도... 네가 고안한 거야...



아직 시험 제품이야... 선불리 쏘지 마...

...!!



아...아니, 하지만 그건...



네가 어릴 때...

역시 너였군...



너무 시시해서...

말 못해...



와... 런던이라고...

네가 생각했어... 왜 다음이 런던이라는 걸 알았지...?



뭐야, 이건...

뭐...



네가... 생각했지...

이것도...



진정한
구세주라고...



진정한
예언자라고...

믿었어
...



커져 갔어
...

그 얼룩이
조금씩
조금씩...



그때...?



의심하는 마음이...
검은 얼룩처럼...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내게 밀려
떨어질 때...
이렇게 말했어...



그...?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닐까...

죽기 직전의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



"친구" 란...

누구야...



그 얘기를
생각한 것은
나만이...



나만이
아니아...



오치아이
초지지?

이 이야기를
같이 생각한
오초...



오초지...?



"친구"는
"친구" 라고...

우리는 정말
믿고 있었어...

"친구"는
"친구" 다...



몰라...



너희들은
속고 있어!!

눈을 떠!



"친구"는
구세주 따위가
아니야!!



"친구"가
하는 말은...!!



밀려
떨어져...?

그...?



너와 "친구"가
동기라고
부르던 남자다...

키도
사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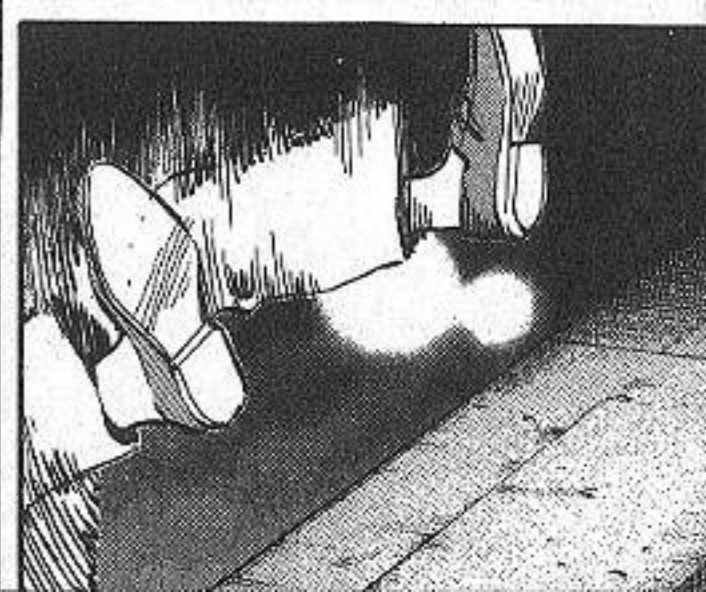
동
키
이
이
이
이
!!



전부 다,
켄지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일이야!!



눈을 따...!!





너밖에.....



지구름...



없어...



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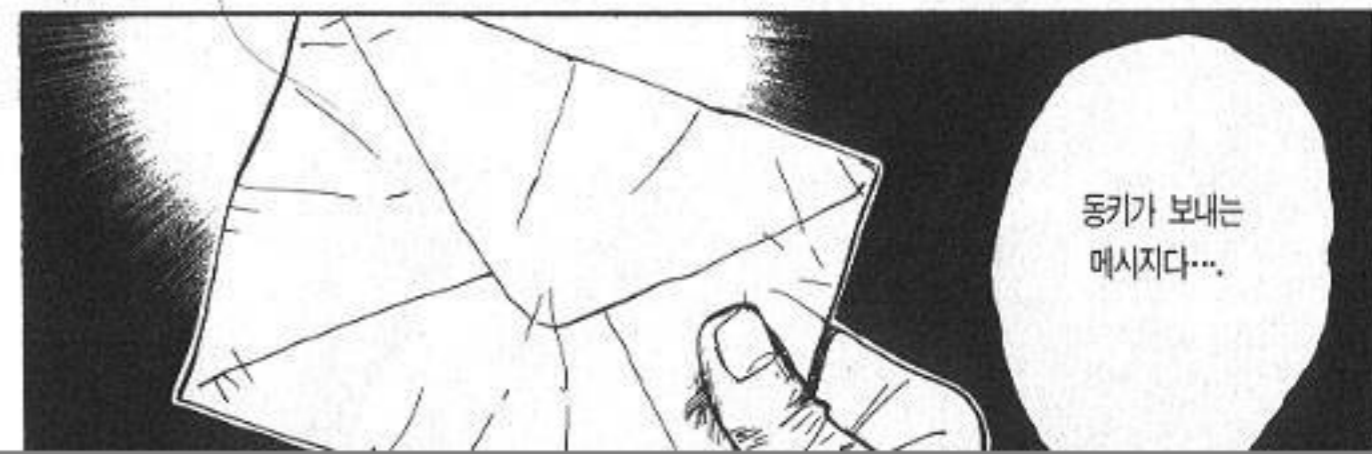
너밖에 없어...



경찰 내부에 ...
이미 우리 한패가 ...
있어...



경찰에는 ...
가지 마...



동키가 보내는
메시지다...